

漢文

西遊記 卷一

雲根育字
源海心



112

1921

1.273

Inches 1 2 3 4 5 6 7 8

Centimetre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Blue Cyan Green Yellow Red Magenta White Brown Black

KODAK Color Control Patches © Eastman Kodak Company, 1977



西遊記前集第一卷

서유기전집제일권

目錄

第一回

靈根育孕源流出

心性修持大道生

第二回

悟徹菩提真妙理

斷魔鬼本合元神

第三回

四海千山皆拱伏

九幽十類盡除名

第四回

官封四馬心何足

名注齊天意未寧

第五回

亂蟠桃大聖偷丹

反天宮諸神捉鬼

第六回

觀音赴會問原因

小聖施威降大聖

第七回

八卦爐中逃大聖

五行山下定心猿

팔괘노중도티성

관음부회문원인

난반도티성투단

관봉필마심하족

스헌천산기공복

오철보제진묘리

영근육잉원유출

오행산하정심원

소성시위항티성

반턴궁제신축귀

명주제련의미령

구유십유진제명

단마귀본합원신

登錄番	3147
分類番	
圖書番	

第八回 제팔회

我佛造經傳極樂 아불조경전극락

觀音奉旨上長安 관음봉지상장안

第九回 제구회

老龍王拙計犯天條 룡왕졸계범천조

魏承相遺書托冥吏 위승상유서탁명리

第十回 제십회

遊地府太宗還魂 유지부리종환혼

進瓜果劉全續配 진과과유전속비

西遊記前集卷之一

서유괴전집권지일

譯述者 朴健會

○제일회 영근육인원유출 심성슈지대도성

던지기벽할제그가온티사티부주가숨것스니동은같은동승신주요셔는같은셔우하
주요남은같은남섬부주요북은같은북구로주라동승신주바다밭게흔나라히잇스되
일흔은오리국이라그나라히바다밭게잇는지라그가온티일좌명산이잇스되일흔은
화파산이라티국이조관홀제청탁을분변하여홍몽을관단하미건곤정괴모힌곳이오
북은빙의좌우전후에돌넛스니옥갓흔물결은바다가에홍몽하고난몽공작과빅학괴
린이되우히셔노니넛괴이흐플과상셔로온뉘치며룩죽창송과빛는시너동턴스이
에기리봄빛치되엿스니과연천만겁이나지나도룩업지아니할쌍이러라이되정박이
에흔덩이괴이흔돌이잇스니놈기는숨심늑척오촌이오유던삼빅늑섬오도를안하엿
고넛비논이십스척이니일년이십스괴를안하엿고우에아흙구멍과여덜름이잇스니
구궁팔패를상하엿스미각별다른수목은업고다만그옥화초들이좌우전후에드리
헛더라던지조판하괴기벽시부터건곤정괴를타는셔구궁을응흔정괴와달정화를쏘

이여 백만년이는 정괴잇게 안흐로 괴운이 어리여 바위가 흐로 부르기를 자식 빈듯 하디
 니 홀연 돌궁기러지며 홀돌알이느려지니 차시는 한선제감로 원년이라 그 돌을 이 큰 바
 람을 인하여 러지미 홀잔남이 되니 사지 범절과 례형이 스름과 갖치 일췌는 지라 그 잔남
 이는 오며 사방을 향하여 절하니 두눈에 금빛 찬란이 쏘이며 하늘에 진동하니 잇췌 옥
 황상제 금궐운궁영쇼보전에서 모든 선관으로 조회 밧으시더니 금광이 찬란함을 보시
 고 즉시 천리안과 숲풍이를 명하여 사남 문들을 열고 보라 하시니 천리안과 숲풍이 명을 밧
 졌와 남 문들을 열고 나가 보더니 오리지 아니하여 도라와 보호되 금광이 이러나는 곳
 을 살펴 보오니 이는 동승신주오리국화과 산슈렴동에 돌노된 잔남이 시로는 서사방을
 향하여 절하니 두눈에 금빛 찬란이여 두우에 사 못치는 이다 옥제 같오스디이거시던
 지 일월 정괴로 된 거시니 럼 상이느 인 간이느 화 될가 노라 하시니 다 숲풍이다 서슬 오디
 이 제는 이거시 인 간에는 와 풀과 물을 먹으니 금광이 장 초 업서 지리이다 하더라 그 잔남
 이 산중에 잇서 회향하여 서너물도 마시고 온갖 싹과 과괴이 홀 싹을 씹으며 호표와 시
 랑으로 더부러 벗이 되여 밤이면 바위와 빙이에서 자고 아침이면 뫼봉오리에 단이며 노
 니 진실노 산중에 시름 업는 한가 홀물 건이라 일스은던 괴극히 온화 할거늘 모든 잔남이
 를 다리고는 무그늘아 리모다 피서 하며 흐르는 물에 목욕도 하며 두루 놀시니 물이 가장
 덥고 김히 물결이 흥용하여 큰 폭포 잇서 물결이 큰 돌궁글막아 나려지니 뛰여 오르기 가
 장 어렵더라 모든 잔남이 손뼉쳐이로 디이 물결이 심히 맑고 나르며 뫼아 리 홀너 디히를

연호였스니 가장 조호며 폭포 높하 뛰여 오르기 어려우니 우리 오날스한가 하노는 지라
 아모나 몸이 상처아니하게 뛰여 올라가서 물근원을 찾노는 우리모다 절하여 왕을 삼
 고 못뛰여 오르는니 신하되여 섬기리라 하고 소리를 연하여 세 번을 부르니 못잔남이
 중에 돌잔남이 소리를 응하여 눈을 감고 한번 소와 물속으로 뛰여 올라져서 허삼하니
 홀 쇠다리 잇고 다리아 리 물결이 두궁을 세쳐나 오거늘 쇠다리아 리나려 안조보니 그가
 온디 홀돌비잇스되 크게 쳧스니 화과 산슈렴동스천이라 하였고 그 속은 가장 맑고 스름
 스든 곳 갖호니 돌노 맨든 방이며 돌노 맨든 부엌이며 돌그릇이 잇고 돌교의 돌상이며 온
 갖거시다 잇스니 이는 하늘이신 별전곤이라 돌잔남이 두루 보기를 다 하리 가 장 갖
 거 눈을 감고 물속으로 뛰여 내려 못잔남이 다려 그 속스연을 이르니 이곳은 진실노 하늘
 이우리를 살게니 신곳이니 이안이 심히 널버 천만인이라 도능히 용납할지라 우리나 가
 살미 췌도다 하디 못잔남이 듯고 가 장 갖거닐오디 우리를 다리고다 시 뛰여 올라하거날
 돌잔남이 또 눈을 감고 물속으로 뛰여 드러가며 날오디 모다 날을 싸라 오라 하거늘 그 중
 에 담큰 잔남이느 능히 뛰여 드러 오고 담저근 잔남이 들은 머리를 움치고 췌며 실라 하니
 모든 잔남이 크게 웃더라 모든 잔남이 돌잔남이를 싸라 그 속에 드러가자 세히 보니 가장
 즐거우니 그릇도 붓들고 후돌상도 만지며 손뼉도 치며 근두질도 하고 다름질도 하고 동스
 글너 날뛰다가 괴운이 쇠진하여 느려지거늘 돌잔남이 석상에 안조 모든 잔남이를 불러
 널오디 사름이 신을 날치 못 할거시니 모다 언약함이 잇거늘 엇지 하려호는 노 맛당이 날

을세워왕을삼고모다동련에드러가기호하히잇서놀며각각저저다리고복을
 누림이엇더하노모든잔납이반렬을니루어군신지례를행하여비례를공순히하고모
 다일오기를천제티왕이라하더라이후로부터돌잔납이놓히왕위를누려질기며추존
 항기를조총하여미후왕이라하니라미후왕이모든원후와모든잔납이를모화군신지
 분을차려앗참이면화과산에가늘고전역이면슈렴동에자며홀노질겨왕낙을누릴시
 빅만년이나과약하더라일각은모든잔납이들을다리고잔치하다가홀연슬픈스식을
 자아녀어눈물을흘니거늘모든잔납이황망이나려절하여갈오티티왕이무삼일노이
 릿뜻슬허하시니잇고미후왕이닐오티남면하여왕작은극진히누리되초로코든인
 성이만년을과약지못할가하여일노슬허하노라모든잔납이듯고우어갈오티티왕이
 엇지슈홀줄을아지못하시니잇고우리늘마다선산복지에외셔즐기니과린과봉황에
 다름이업셔스사로잇스며인간군왕에게구속하며스사로헛나하여즐기니또호무량
 티북이라무어슬염녀하여근심하시리잇고왕이닐오티비록왕법에미이미업고금슈
 의두려움이업스나히늘고혈기가최고면념왕로조의게잡힌티되어세상을리별할
 가하노라모든잔납이각말을듯고낮을가리고슬허하며세상에무궁이잇음을바라되
 그중에흥비원슈라하느잔납이니라소리를놓혀닐오티왕이각릿릿념녀하스슬허
 하심이진실노마음이그러하시거니와세상만물지중에축성과증심이념왕로조의게
 잡힘이되나오직부처와선선과성인이념왕과로조의게간섭지아니하야빅만년호회

를지니되스름도업고죽음도업셔산천으로더부러목숨이호가지로코호니일정선도
 나불도나비호려하시면반다시성취하시리이다미후왕이이말을듯고가장너심에깃
 거뒤늘며닐오티이제장성불사하느자최를어덧스니너일너희등을리별하교구름
 코치바다가호로단니며하날뺏출쳐지면다만제가지도를비화기리장성홀도들어더
 념왕의어려움을버셔나리라하니이두어말이제천티성으로빅만년회를버셔나하늘
 에큰도를비홀쳐라모든잔납이들이손벽치며사레하더니미후왕이장치가려홀셔
 못잔납이온코과이호실과와향기로운술과상셔의뺏출모화잔치를비결하야미후왕
 을추존하야놓히안치고각각엇기를코가이하여리별하니미후왕이모든잔납이로더
 부러동일도록동음하고잇는날일작이셔나려할셔져근잔납이를분부하여이운술을
 버혀쉴을민들고긴티로상아티를맨드려약간과실을슈습하여가지고홀노쉴을모화
 라고진력하여져오니표표탕탕이디히중으로향할셔이정히잔납의운열리느껴라
 연일하여동남풍이々러나쉴을모라셔북두덩에다々라붓치니남섬부주지배라상아
 티를들어물심천을시험하니물이엇튼곳이어날쉴을바리고뛰여못하니리바다가
 히고요한티스름들이후고기도잡으며조기도주으며쇼금도급느스름들이미후왕의
 거동을보고놀나그물도바리고광주리도던지고사면으로다라나거늘그중에하나홀
 잡아의복을아스입고고을에드러가져저거리로단니며사람의례도비호며말도비화
 마음에말원코져하여두루부처의법이며선선의도와장성불사할방문을차즈되이곳

사름은구사히명리를싸도는류요달속호선골이업는지라남섬부주에큰성이며저근
 고을노도라단니며선도찾기를팔구년이되도록자최를엇지못하더니일사은싸다라
 왈일정바다박게선선이잇스리라하야전처로싸를모와라고바람을쫓쳐서호로가다
 가셔우하주지계에왔거늘싸에나려둔당에셔여올나두루보니호되놓히잇스되빛는
 싯과가진경기거룩하니이진짓선선잇는곳이라미후왕이되히올나두루구경호시
 기쁜슈플속에중사하는스름의말소리들니거늘가마니거러슈플속에드러가귀를기
 우리고드르니과연호스름이노리를부르거늘같이오디섭홀파라술을스먹고밋츠게우
 으며스스로정을머물너프른길을향하야술씩리를향하며의지하여하늘이밝으면잠
 을싸는도다도체를차고빙의에올나이운남글싸려잠을민드러시상에노리부르며돈
 바들맞근제상에계관하야썩부리며공교이영육을해아리미업도다화하게말하야장
 스홀을만날곳은선도가아니면곳놓흔도이라고요히안자황정경을늘는도다하엿더
 라미후왕이이노리를듯고깃거해오디선선기아니면화로여슈줄에드러는가하고자
 서이살피보니호초뵈베웃입고머리에플갓쓰고손에도체를들고남글버히니상되비
 범하거날왕이압해나가닐오디선선계저비를고하느이다초부황망이도체를바리고
 답례왈나는또호의식도이우지못하느졸흔사람이라엇지감히선선두즈를당하리요
 왕이이로디선선의형사아니면엇지선선의말을하더뇨초부닐오티무삼선선의말을
 하더뇨미후왕이닐오티니슈플에서여하드르니노리부르되셔로만나는곳이선선의

도아니면곳놓흔도니고요이안자황정경을외오는도다하느이황정경은진짓선도의
 말이니선선이아니면무엇이리오초부잇셔웃고닐오티니그티를속이지못하리니이
 노리일호은만정방이니우리집것히호선선이잇셔니이러듯만나는것슬어엿비너겨
 가르치며닐오티몸이변되홀씩에부르며호험이쾌히잇스리라하기로이글을념하더
 니그티가드름줄은과약지못하엿노라미후왕이닐오티선선을이웃을삼고엇지선도
 를비와하지아니홀방문을다지아니하고엇지이러듯피로온바를하느다초부닐오티
 니일성이명되박하어려져야비죽고어미과거하니봉양홀동성이업는지라다만나
 홀노모천을받들미다만남글호로만못하여도로모를봉양할일이업기로도를비호지
 못하노라미후왕이닐오티그티말을드르니호형에군자라반다시후에복죽을누리미
 잇시려니와청컨디선선계곳을가릇처라초부닐오티이산속에잇스니되일호은영
 주방초산이라글일호은서월삼성동이니골속에호선선이잇시되호호는같은슈보리
 도사라하느니도를비호는제스슈를아지못하느니지금삼사십인이잇스니도를
 차지려하면이저근길노차즈칠팔리를가면이선선의집이라호디왕이초부를잡아살
 며일오티그티는날과하가지로가미엇더하뇨만일도를비호면결단하여오날사가르
 천은혜를잇지아니하리라초부왈가장변통업는사름이로다니갈곳을낮사처가르쳐
 거늘또엇지날다려가자하고못치는뇨니만일그티를싸라가면니성리에크게히로오
 리라오날로모의봉양을스차리라미후왕이호릴업셔초부를뜻코가르쳐길디로길을

초쳐철팔리는가더라

○제이회 오철보리진묘리 단마귀본합원신

차시미후왕이 초부가 르친길티로호호곳에다라바라보니호들비잇고미가온디다섯
글자써스되영디방촌산이라호였고글노드러가니골어귀에돌비잇스되시일삼성동
이라호였더라미후왕이싱각호되초부의말이허언이아니로다호고일리는드러가니
창송록죽은창창을호호되호도관이잇고문을반기호였스나인적이고요호거늘미후
왕이감히드러가지못호고솔남게올나솔방울을씩먹으며스람나오기를기다리더니
잇떡슈보리존스연화보좌에안즈스되중을다리고정히설법호더니문득향노에향연
이바람를쫓초존스의압히이르거늘존스동즈다려문왈맛게속귀이왔스니나가보라
동재슈명호고문밖게나가보니솔나무우히호되현외공갓흔거시솔방울을짜먹거늘
동지늘니여급히몸을두루혀드러가본티로고호니존스닐오디네나가불너오라동지
다시문밖게나오니차시미후왕이동지나음을보고반겨급히뛰어나려정히못고즈
호더니문득동지안호르드러가미아연실망호여정히방황호더니다시나음을보고몸
을급혀레호고닐오디존즈는제즈를어엿비보쇼셔동지답레호고왈나는존사아니오
사부안에게셔부르시니호씩가즈호고호가지로드러오니미후왕이디희호여싸르며
사면을삼혀보니괴화이초는사면에가득호고청학벽학은출추고노니더라동지잇그
러연티호에니르미마후왕이며리를조와네번이나절호고우러호바라보니존사운관

무의로철보금티에단정하안젓는디좌우에디중이되섯더라존사문왈너는어니골에
사나노미후왕이다시살어절호고호왈제즈는동승신주오리국화과산슈렴동에서사
느이다존시쑤지저왈제즈등은모라니치라간사호무리엇지도를비화당그리오왕이
머리를천만번이나조으며왈제즈의말이조금도허무호고간스함이업스이다존시왈
네님의실호패라호나동승신주가여괴셔천만리나호며가업슨바다히자조가렸고남
섬부주자도막혔스니네엇지여괴를득달호리오네말이엇지간스함이아니냐왕이다
시머리를조와답호여왈제즈그런디히를죽을번호여십여년만에겨우여괴를오니이
다존시왈그러면성명이무어시노미후왕왈성명이업느이다존시왈네임의무부모면
니와네부모성명은무어시라호나나왕이답왈부모업느이다존시왈네임의무부모면
슈목으로되였나나왕이답호되제즈슈목으로되바도아니옴고돌속에서숨겨났스
니다만듯잡기를화과산우히호돌이잇습더니그돌이러지며제즈의몸이되여났다호
더이다존시이말을듯고마음에헤오디이거시필경하날이삼겨너지도다호고왕다려
왈니볼거시잇스니네호박탕을날뛰라왕이몸을써쳐호박탕을날뛰다가또호다름질
호니존시웃고왈네세상에잇스니몸은비록더러우나송벽만싸먹는호손이로소니네
호손이란말을의지호여성을손이라지어주소라왕이듯고마음에가업시깃거호여머
리를조아사레호여왈가장조흔니이다오날호성을어덧습거니와원컨디사부호일호
을마자지어주소셔존시왈우리존문에열두글즈중에세다를오짜와빌공섯가호장중

하니 네법명을 오공이라 하노라 미후왕이 깃거 웃고 머리를 빗번이나 조아사례하니 일
 노부터 부르기를 손오공이라 하더라 미후왕이 성명을 잊고 뒤늘며 존스 세사례하니 존
 시디증을 명하야 손오공을 들지 문밖게가 물썩러 쓰레질하며 온갓레절을 가르치라 할
 디 모든 제조 오공을 다리고 문밖게나오니 오공이 모든 사형에 게레하야 퇴고제잇슬 곳
 에가 쉬다 명일 모든 스형의 게며 레모와 경허기와 조사의 외하야 글자쓰기와 향뵈우
 기를 비화부지련이 하 며 날마다 할가 할씩 면동산에 호미질하기와 씻나무에 물쥬기와
 불허기와 나무하기를 비와 동중에 잇기를 녹철년이나 하엿더라 일일은 식사관에 올
 나 모든 제조를 다리고 크도를 의론할 처날에서 씻비오고 쌍에서 금년이 소스오르니
 던지 일월이 명남하 고상서의 구름이 어리엿더라 손오공이 깃히잇서 큰도를 강론함을
 듯고 깃뵈을 이기지 못하야 귀를 썩지기며 양조를 실노거리고 눈섭을 움작이고 말을 구
 을너 경망이 날뵈더니 존시오공의 거동을 보고 왈네이 가온디 밋천것갓차날뵈며도를
 강논함을 듯지 아니하니 엿진일이 노오공이 디왈 제조정성으로 도를 듯스오며 스승의
 하시는 경계에 이르러는 깃뵈을 이기지 못하야 이렇듯 날뵈물 썩지 못하오니 죄를
 사하소서 존스왈네 임의 법술을 아랏스니 너 다려 못노니 네이 동중에 온지 열마하노
 하야 뒤회하니 무하러가오디 그피회조흔복성화잇는지라 싸먹기를 일곱시절을 하엿
 나이다 존시왈그피일흠은난도산이니 네님의 일곱이나 싸먹엇스면 일곱히를 지니엿

거니와 네이 제나를 츠와셔 여러히잇섯스니 무삼도를 비호고 조하는 다오 공이 디
 왈 제조 무삼되 조흔 줄알니 잇고 존스 왈 무릇되 삼빅늑 십방문이 오문마다 정패잇스니
 아지 못게라 어느 방문을 비호고 자하는 다오 공이 디 왈 스승님 교훈디로 제조 비호를
 이오 엿지알니 잇고 존시왈 술자문은 신선이 점복하야 청하야 패상을 버려 능히 흥할디
 를 피하고 길할디 나아가는 일을 아논이라 오공이 답고 왈 그러하죽 능히 장성불스하리
 잇가 존스 왈 장성은 못하리 라오공이 엿자오디 그러하죽 불가하야 이다 그러하면 늑
 문도를 비호면 엿다 하노오공이 대왈 이는 엿다 하니 잇고 존시왈 선비와 종이며 도스
 와의관과 음양지슈니 후경도 늑으며 후염불도 하며 다그득하니 라오공이 대왈 이는 가
 히장성하리 잇가 존시왈 만일 하려하면 바람속에 세운기동갓흔니 라오공왈 제조이말
 삼을 아지 못하오니 엿지 이르시미니 잇고 존시날오디 사람에집이바람속에기동세우
 미니 가장 견고하듯하나 집이 문허지면기동이 썩어엿는니네 엿지 홀다오공왈 이말
 을드르니 또 장성지술이아니면마스이다 존시왈네그리면 정자문도를 비호련다오
 공왈이도논엿다하니 잇고 존시왈이도논절곡하야 청정하야 말하니 하면도를 비호는
 이라오공이 대왈이도논장성하야 최정하야 흠그릇시 얼골이니그러나 불에 굽지 못하
 면상하는 죠하나 큰비오면 푸러지는지라 양성하야 면숫하나 무를 썩여란스를 굽는니라
 오공이 답왈 이는 장성하리 잇가 존시왈 이는 장성코조하면물가온대 달잠긴것갓흔
 니라오공이 답되 엿지 이르시미니 잇고 존스 왈 달이하날에도다물속에비취니달그

림즈를보고물을잡으려하면이또흐헛거시니허무함이갓흐니라오공왈그러면바
 라지아니리다존스오공의말을듯고로호하여혀초고티에나려손으로게척을드러오공
 을가르쳐쑥지져왈이후손이이러듯공순치아니호여이것비호라호여도마다호니무
 어슬비호려호는다호고게척으로오공의머리를세번치며중문을다드니설법호는티
 중이져마다놀나고오공을원망호여왈요돌잔남이무상호여스승님을결위이러듯호
 니사부언제다시나오실고쑥짓기를마지아니호티오공은스승의일을아랏는지라티
 심에냉호호고모든사름의쑥지람을다시가르지아니호티오공이마음에잇거
 하늘이저물기를기다려황혼시에티중으로더부러자되오공은홀노잠이업셔밤들기
 를기다려정히안젓더니산중에경점이업는지라쑥을아지못호여제코궁그로드나드
 논숨을짐작호여자시쑥노되거늘몸을쑥혀엿길를차지뒤스문에나르니달이명낭호
 여밝고흰니슬은삼사히나리고시니는잔사호니정히삼경씩오문은반만널엿더라오
 공이혜오티니스승님의현리를아라오미과연호니큰도를비호쑥로다호고가만이거
 러드러가스승의조는답아티드러가감히세오지못호고답호에동고랏케안젓더니이
 유호여스승이가지키히고호글을 읊호니기셔에호엿스되

難難難道最玄

어렵고어려운도가장그윽하니

莫把金丹作等閒

금단을등한이아지말나

不遇真人傳妙訣

진인을 만나 묘결을 전치 못하니

空教口困舌頭乾

공연이입이괴롭고혀가둔호도다

오공이쇼리를응호여티답호되스승님아제조임의예와기다린지오리니이다존스오
 공의쇼리를아라듯고즉시이러안조웃을넘고단정이안져쑥지져왈이호손이밤되물
 녀기지아니코무삼일노이김흔티드러와는다오공이답왈스승님어제단에서큰도를
 강호실제티중에모든제조를가르쳐삼경씩후문으로와도를비호라호시니제조스
 승님교령을아는고로당돌이드러와티령호엿나이다존스이말을듯고십분기거가마
 니혜오티이거시과연하날이습긴거시로다그렇치아니면엇지그윽호나의현묘호법
 리를알니호호고마음에칭찬호기를마지아니호티오공왈여과다른귀와눈이업고
 다만제조호나쑥이니스승님은어엿비너겨장성불스호는도를가르쳐소서죽스와도
 은혜를잇지아니호호리이다존스왈다만청량호호괴운을어드라청량지괴를어드면
 그빗치고결호리니달이옥도를감춤갓호며희에금가마귀감춤갓호니셔로반묘호
 며성명이구들거시니능히불속에금년을심음갓호니라오공이정심치지호여도를비호
 며쓰면공부완전함을조초부쳐와선언이나되느니라오공이정심치지호여도를비호
 셔존스도에김흔근원이며묘호곳을티강바유호야이르니오공이마음에영오호고복
 이니르는데라존사이르시니구절을따라일사히괴륙호여쳐닷고존스의김흔은혜를
 비스호후뒤스문으로노오니하늘이장차셔며셔괴방광호엿더라엿길을차자든방
 에도라오니티중은오히려오공의큰도를비호는줄모르고잇더라오공이존스의게도

를 비온 후 주야게으르지 아니하야 형실을 단근지 삼년에 이르러 큰법을 강하더니 문득 무르되 오공이 어티잇는 노오공이 는 아가 고하되 제 조예왔는 이 다 존사왈네 요스이에 도를 열마는 공부하엿는 다 오공이 답왈 제 조도를 슈삼년 닷갓스오니 요사이법을 자못 통하야 원근이 점々 갑흐며 곳는 이 다 존사왈네 요사이법성을 통하야 근원이 구드면도 에 묘흔 곳을 아랏거니와 다 만세가 지지앙이잇스리라 능히 막을 줄아는 다 오공이 이윽 하침음하다가 날오티제 조일적드르니 도놈고 갑사오면 목숨이 하날과갓고 슈해남 의화하야 박병이나 지아니흐다하거늘 무삼지앙이니 잇고 존사왈이 는 비상호지앙이 아니라던지 조화를 아샷스니 일월정기를 침노하야며 금각이림호면 귀신도 칠향치못하 고 목숨도 그음업거니와 다만 오백년후면 하날우되 로칠지앙이잇서너를치리니 부티 마음을 밝히고 도를 닷가 피할일을 묻져예비하려니와 비록우되는 면하려니와 또오백 년후면 하날노셔화지느려와너를살을거시니 이불은 하날불도아니요 곳음해니이불 은네몸용혈가온티로(용혈은 발바당이라) 못히너러나 환공을 매쳐 못터오면 오장파 사지가 다 지되는니라 비록이를겨우면호면 또오백년이 지는 면하날노셔바람지앙이 이러느리니 이바람은 해풍도아니오 삭풍도아니오 동셔남북풍도아니오 일녀풍이니 네 두쌍가온티로 못터드러 녹부를 혼드러 단전을 케쳐 구구로나오면 싸와살이다 슬허 지리니 이른바 삼제라 부티이익을 면하야가히전공부를 익여장성불사하리라 이삼 제를엇지면하리오 오공이 이말을듯고 마음과터력이 솟글하야 머리 조아올며 비러왈

스승님은 이호손이덕의 어엿비녀기심을 바라옵나니 삼지 피할법을 가르치쇼셔 비록 죽스와도은혜를 잇지아니하오리다 존사왈이또한어렵지아니하는 가르치지못할 가하노라 오공이티왈 제 조머리에하늘을쓰고 발노쌍을드티여 규슈사지와 오장녹부 다잇스니 엿지사름과갓지아니라하시니 잇고 존사왈네 비록스름갓다하나 이는 본티 네몸이 잔납이라 냥제바라지고 썸이적고 부리 썸죽하고 마음이 경망하거던 엿지스름 과갓다하는 다 오공이 제모양과제얼골을 이르심을듯고 허々우으며 티답하되 제 조비 록 썸이적고 부리 썸죽하고 마음이 경망하듯하오나 쓸데난스름보다나흐니 남과갓흔 법신이라 이르지마르쇼셔 존사쇼왈네님의 제앙을 피할도리를 비호고져할진디던 살 셔른여섯가지 변화와 지살일흔두가지 변화 죽히삼지를 면할거시니 어너거슬비호고 저하는 다 오공왈이제 지살 변화쉬만흐니던 살을 비호고저하는 이 다 존사왈네이를비 호고저할진디는 아와비호라하고 오공의 귀에다 현묘쳐를이르니 티중은 아모일인 줄모르더라 이호손은 마음이 영아흐지라흐말을드르티빅가지일을쳐치고 혼일을헛 하미빅일이되는지라 지서던 살셔른여섯가지 변화며 지살일흔두가지 변화를 다 비와 삼년을드러공부하니 변화무궁흔지라 일々は 존사티중으로더부러삼성동아리셔는 진경치를보다가 문득오공다려왈네공부다일췌는 다 오공이티왈 스승님에바다갓 혼은혜를입스와공부다일우워능히구름일고안기뵈듯하야 선가도술를다일췌나이다 존사왈네일의일췌거든 혼번시헛하야 보라오공이 혼번근두쳐구름속에이삼리나

을 낫드 가 절덧ㅎ여 존스압히느려 합장ㅎ고 왓족히 구름을 탄다 이르릿가 존스왓
 이논구름을 탄드 흙이 아니라 네 구름을 다는 법을 보니 불과 삼리도 못가니 엇지 신선의
 계비기리 오ㅎ더라 일일은 또 오공드려 왓넷글에 널넛스되 신선은 앓참이면 북히에 놀
 고 전역이면 창오에 가논다ㅎ엿스니 너는 반일이나ㅎ되 삼리도 못가니 엇지 신선에 비
 기리 오오공왓스승님은 호손을 어엿비너기사 구름타는 법을 가르쳐 주쇼셔 존스왓
 네 구름에 오르논양을 보니 우리 법도를 못일우쳤도다ㅎ고 귀에 디여 법을 일으니 오공
 이 총명ㅎ야 순순괴록ㅎ니라 모든 제조모다 무삼말인지 모르더라 일々은 제조모혀강
 논ㅎ다가 쉬일스이에 오공다려 왓도 제그스이에 무삼법술을 통흔지 구경코즈ㅎ노
 라 오공왓그사이 주야로 공부ㅎ야 임의 일헛거니와 모드보라ㅎ고 문득진언을 념ㅎ며
 몸을 훌쩍흔드려 나々장송이 되여 가지며 념々히씩々ㅎ고 현양ㅎ니 참술과 분변치 못
 할지라 디중이 웃고 모다 손벽쳐쇼리ㅎ여 왓착흔 잔납뵈로 다ㅎ는 쇼리요란ㅎ여 존스
 를 놀닌지라 존스 문득그요란함을 듯고 디중을 불너 무르니 디중이 썩리고 왓제조등
 이 강논ㅎ고 쉬일스이에 오공의 법술을 보고즈 할이러니 존스이에 놀나시니 황공사죄
 하느이다 존스 침음양구에 오공을 명ㅎ여 왓네이 제이 곳운슈진ㅎ고 법술을 비와스니
 네 맛당이 선심슈도ㅎ여 락리를 범치말고 나의 가르침을 잊지 말나ㅎ시며 보닌기를 지
 축ㅎ나 오공이 황구란식ㅎ며 부슈청명ㅎ여 락변이나 절ㅎ여 존스 제ㅎ직ㅎ고 디중을
 리 별ㅎ고 흔변근 두쳐편시에 화과 산슈렴동으로 오니 잔납이 빙의우히며 돌름에서

무리 지어나와 보고 반겨 날치며 날오디사왕이 어디가 서계시다 가이제야도라 오서잇
 가요스이 혼요귀우리 동중에 드려와쳐즈를 겁박ㅎ며가 장지물을 다아스가 오디우리
 등이 힘이부족ㅎ야 이런 변을 당ㅎ엿스오니 디왕은 엇지 저놈과겨루리잇가 오
 공이 듯고이에 디로 왓엿던요귀와 디이러듯무상ㅎ더노니이놈을 잡아원슈를 갑흐리
 라 못잔납이 들아머리 조아사레ㅎ되그요괴일갓기를 혼제마왕이라ㅎ고 북으로가더
 이다 오공왓에서 열마나 되더노 잔납이 디왓제를 제논구름타고 갈제는 안기되여가되
 바람과 비와 되덩벽력이나리니 아모란 줄모를너이다 오공왓너히논 두려ㅎ나니 엇지
 두려워ㅎ리요니 천허츠가 원슈를 갑흐리라ㅎ고 즉시 구름타고 공중에 올라 북다히
 를 바라보니 큰뫼히 험ㅎ고요괴괴운이 잇거늘 바로 뛰여그뫼에나리니 푸른방이에 슈
 장동이라 삭엿고그골문밖에 저근요괴 두어시단이다가 오공을 보고다라나거늘 오
 공왓너히논 닷지 말나々는 슈렴동미후왕이러니네 짐혼제마왕이란놈이로야 디에와
 작란ㅎ고자손도 만히 잡아왔기로 그죄를 못고져왔노라그요괴 급히드러가고흔디 혼
 제마왕이 쇼왓너드르니 슈렴동우두잔납이 도를 비호려갓다ㅎ더니이제와도다그러
 하느모양은 엇더ㅎ며 병기는 무어슬가졌다노저근요괴 디답ㅎ되 불과 웃입고누른씩
 띄고 검은혜산고왓스되 중도아니 오빈슈먹으로와더이다마왕이 듯고왓이 잔납이 죽
 으러와도다ㅎ고 즉시 투고쓰고 은갑 낚고 큰 칼들고 모든요괴를 거나리고 골문밖에나
 와크게 웨여 왓수렴동우두잔납이 어디잇는노 오공이 쓰웨여 왓요괴눈이 적어미후왕

을물노보는다마왕왕네키녀자이못되고나도삼십이못되고손에병기도업고가장담
 큰체하고미체체야이르러무레히구는다미후왕왕네몸이크고칼을드러셔도늬는
 히흔쥬머귀로당하리니빨니와되적하라언필에마왕이티쇼하며칼을드러다라들거
 늘오공이마자싸호가업호로박츠니마왕이구러졌다가다시이러나칼을머무르고
 도체를드러오공을치니오공이도를비은후로팔만사천러력이듯쳐났사치변화하여
 창과칼이상히오지못하니엇지요만요괴를두려하리오급히떨어나흔빠여공중에뿔
 으니삼백저근잔남이되여사면으로에워쓰눈을뜨지못하게두다리니마왕이동셔로
 피하며헤지르거늘오공이마왕의목에올나안조칼을아사마왕을쳐쳐죽이고바로수
 장동에드러가무슈흔잔요괴를다짓지르고러력을거두어몸에올니고슈렴동에서잡
 혀온잔남이를부르니모다보고반겨올거날오공이위로하고아사왔든괴명과저물을
 슈습하고슈장동을불지르고도라을쉬못잔남이이로티우리잡혀올제공중으로와길
 를모르니엇지하리오오공왕엇지길을근심하리오하고구름타고순식간에슈렴동으
 로오니못잔남이들이지저귀며하레하고뛰놀며요귀잡든말을못거늘오공이자셔이
 이르니못잔남이들이또도비호든일을못거늘예를라고티혀를도라남섬부주로도라
 서양티혀를건너팔구년만에서우하주에이르러흔신션을만나장성불사홀도술를비
 와일흔두가지변화하며비록념왕로조라도두려움이업세라하니모다일너하레왕엿츠
 죠흔도를비회게시도쇼이다오공이쇼왕이제는너성명을어덧스니손오공이라또

흔나를인하여성을너히도엿게하엿도다못잔남이날뛰며왕이임의손으로성을
 다랏스니로손이라하시고이손삼손지우만손이라하스이다하고질겨잔처하며치하
 하여일오티왕의청덕으로그런요괴를멸하시고동류고도에모닷스니은덕이하하
 갓흔지라지조를닷가되시고동락함이즐겁지아니하리오하더라

○데삼회 스히천산지공복 구유십유진제명

각설미후왕이흔세마왕을쇼멸하고큰칼을어더쓰기를억히며못잔남이들을모화티
 를짜가창과칼을민늘며혹환도사민드러영체를세우고무예를조련하더니미후왕이
 홀연성각하고모든잔남이들을티하여알니희가진거시다티로민든창이니혹사름이
 나즘성이나모다창금을가지고우리를치면장초엇지하리오못잔남이 차연을듯고
 저마다늘니일오티사왕의쇼견이올흐니이다그러나병과를어들길이업사오니엇지
 하리잇고흔티적고원수와동비원수와원후원슈나와주하되대왕은근심치마르쇼셔
 조흔병과어들곳이있나이다미후왕이일오티어다가드리오삼원쉬티답하여왈이
 리로셔동으로빅리만가면오리국이러는나라이잇스니그러나라이군병이성만하고빅
 성이가음여러병과만스오나티왕이천히쓰호거나혹아사나오면병과를만히어들거
 시니이동중에긴급호일이니이다미후왕이듯고일오티너희가아니면우리동련을
 보전치못할낫다하고즉시근두운을타고오리국에가니큰성이잇고여섯거리완세져
 짓잇고천만티소인기가장부성하거늘미후왕이일오티이느라이이러거룩하니일정

병괴를사거는빌거는하는거시맛당하되신동으로아스미쫓다하고전언을염하며손
 방을향하야남으로크게찬괴운을흔번부니일진광풍이이러는런지아득하며모라날
 니고돌이드름질하니그는라왕이며백성이드름고그런저즈를것고감히하날도
 너미러보지못하거늘미후왕이바로구름속에서벽괴쓰인곳에는아가터력을싸혀썩
 어썩으니천만이는흔잔납이되엿거늘각々힘티로흔짐식가지고바람을거두며구름
 을타고화파산으로도라오니세원수며못잔납이들이사해하고각々창도가지고갈도
 가지며도최도들며공되도가저영에도라와저조를익히니모든잔납이수가사만철천
 이라위엄이원근에진동하니철십이동요왕이모다와미후왕제절하고되며히마다조
 공하여호표시랑과동고와갑주와온갖거슬드리니수렴동잔납이의무리무예정々제
 々하여조련하미철동又치구든지라미후왕이깃거세원수다려왈너히도궁되쓰기와
 참쓰기는정제하엿거니와다만나의쓰는칼이가귀야와힘이맛又치못하니엇지하면
 조호리요세원수일오티々왕은신선이시니예스병괴는쓰섬직지아니하오니부티
 괴특흔병괴를쓰시리니아지못게라티왕이혹시물속에도드러가시리잇가미후왕이
 일오티니도를비은후일흔두가지디살변화와가업슨신동을가져스니근두운을타며
 몸도감초며하늘에도오르고쌍에도들고쇠들도쳐치며물에드러도상처아니며물에
 드러도타지아니코련하에어려운거시업거늘물에야엇지어려움잇스리오세원수
 일오티々왕이々러듯신동이거룩하시니우리동구밭게쇠다리압물이동희로룩하야

룡궁에사못쳐스미일전에듯사은즉늙은룡왕의게괴특흔병괴있다하오니티왕이룡
 궁에드러가시면가히어드리다미후왕이듯고티희하여즉시쇠다리밧히가물열니는
 진언을념하니물이즉시열니거늘흔번씩여드러가동희물밧흐로드러가더니문득흔
 순시하는야체를만나미야체닌다못거늘미후왕이답왈나는화파산수렴동에서는미
 후왕손오공이러니너의룡왕과이웃하여사는지라흔번보고자하야차와노라흔티
 야체급々히수렴궁에드러가보하되밧게수렴동중에서사는런상선인손오공이니웃
 하야사노라하고차자와티왕제퇴오려하는이다동희룡왕오광이듯고룡조와슈족을
 거는려문에는와마져전에올는좌정후에츠를파하고무러가로티상선은언제도를어
 더무삼저조를비화해서니잇고미후왕이일오티출가하여도를다가장성불스하코불
 성불멸하는도를비화슴으로요사이자손을모와군괴를조련하니힘에맛는병괴업
 는지라듯자오니어진웃에왕략을오리누리시니일정신괴흔병괴잇슬듯하야특별
 이흔벌을비나이다룡왕이미후왕의신동이거룩함을듯고감히거사리못하야즉
 시절도스를불너큰환도하늘가져오니미후왕이일오티로손이갈쓰기를잘못하니
 다른것을주소셔룡왕이또뵈티위를불너구교체리창을너여오니미후왕이씩여나려
 휘들너써보나가귀야와힘이맛지아니하거늘룡왕다려일오티이병괴는힘에가귀야
 오니다른것을주소셔룡왕이쇼왈상선이아지못하니이다이병괴무게삼천근이어날
 엿지가귀압다하는노미후왕왈그러나힘에맛지아니하니엇지하리요룡왕이마음에

두려급히 경제독과리총병을 불너 방편화극을 매어 너오니 무개철천오릭근이러라 미
 후왕이 뛰여느려가 손에 잡고 두어 번 들너 본 후 쌍에 박고 널오티이 것도 가 뛰야와 힘에
 맛지아니 하니 다른 것을 주쇼셔 하니 룡왕이 가장 두려일오티상선아니 궁중에 는이 두
 어가지 병과외에 는 업는 이다 미 후왕이 웃고 널오티 냷스름이 이 르기를 룡궁에 는 업는
 것이 업다 하거늘 철마 다른 것이 업스리오다 른 것을 주시면 갑을 너리 이다 룡왕이 일
 오티 업는 거시야 엇지 하며 갑을 엇지 바드리 잇고 잇는 거시야 아니 드릴 잇가 하고 가장
 민맛이 녀이더니 룡왕 룡왕의 장뒤에서 듯다가 발름으로 가 만이 룡왕께 고하되 이스름을
 보니 저근 병과 는 디 접지 못 할 거시니 우리 허중에 홍슈를 다 사 릴 제 하우 씨 쓰든 홀 덩이
 신진철이 요스 이상셔의 과운이 영과 여금 빗치 찬란하 다니 이 일 정 임즈를 만 날 중 조로
 소이다 룡왕이 일오티이 거시 하우 씨 홍슈 정하 시던 거 심의 강하에 갑고 엇음을 해아리
 시던 거시니 홀 덩이 쇠라 무어 세 쓰리 룡왕이 일오티 쓰나 못쓰는 주어 셔 못쓰 량이면 우
 리께 아 랑 곳 하 리 잇가 룡왕이 그 말을 을 허녀겨 신진철 잇는 곳을 미 후왕 다려 일으니 미
 후왕이 일오티 아 못커나 가져오라 룡왕이 머리를 흔들며 일오티 우리로서는 조곰도 움
 작이지 못하 리니 상선이 천히 허중에 가서 보쇼셔 미 후왕이 문왕어 너 곳에 잇는 잇고 룡
 왕이 미 후왕을 인도 하 여 허중에 가니 금광이 만 줄이나 영과 여 조요하니 눈을 바로 쓰지
 못하드 가 진정하 리 룡왕이 일오티 저 금광 가 온티 잇는 거시 신진철이라 하거늘 미 후왕
 이 웃나 너 두치고 드러가 드러 너니 몸피는 말만 하 고 길 이 는 두 발은 하 거늘 미 후왕이 들

고 진언을 영하 니 몸피가 느러 손에 쥐기 만 하 거늘 두어 번 사 득여 보니 두머리를 금으로
 싣고 가 온티는 쇠로 밍드러트스 니 중간에 다섯 쌍을 사 엇스되 여 의금자 방이라 하엿고
 또 등에 사 엇스되 종이 일만 삼천근이라 하엿거늘 마음에 해오티 이는 보릭니 사름의 뜻
 과 갖치 삼겨스디 일 정 념하 는 디로 되리 로 다 하 고 손에 들고 진언을 념하 며 적어 지라 하
 니 슈뜻는 바늘만 하 거늘 귀에 너 혀다가 다 시 너 여 번 득이 니 두 발은 홀 길 이어 늘 룡왕
 이 보고 너 시 업셔 셜며 모든 슈족들 도 모다 머리를 움치고 죽은 것 갓더라 미 후왕이 신
 진철을 손에 쥐고 슈정궁에 와 룡왕께 스레 왈 디 왕의 후하 신은혜를 엇지 드 갑호 리 잇고
 룡왕이 홀 불부 체하 여 드 만 불갑음을 일커 르니 미 후왕이 일오티 보릭의 쇠막 디를 어 덧
 스니 마음에 가 갖기 부거니와 또 고 할 말 숨이 잇는 이다 룡왕이 황망이 답하되 상선은 무
 삼말 삼인지 이르소서 미 후왕이 일오티 드 만 갑주 흔 별 만 주 소셔 룡왕이 일오티 너 게는
 가 할 거시 업스 니 엇지 하 리 오미 후왕이 일오티 상단에 일 냷스되 손이 주인을 못히 지 못
 홀다 일 냷스 니 아니 주시면 결코 이문을 는 지 아니 하 리 이다 룡왕 왈 이 곳은 업스 니 다
 른바 드에 가 셔 구하 쇼셔 미 후왕이 일오티 냷스름이 일 냷스되 제 집을 드이니니 홀집에
 셔 엇는 다 하 니 좋지 아니 주시면 이 쇠막 디로 시험 하 리 이다 룡왕이 이 말을 듯고 슬허녀
 거 황망이 답하되 상선은 로치 마르소서 너 아오 여 러 히 잇스 니 어 더 보 너 라 하 스이 드 미
 후왕이 문왈 디 왕의 아오 너니 잇고 룡왕 왈 너 아오 너 셔 허 룡왕 오윤과 남 허 룡왕 오흠과
 북 허 룡왕 오순이니 이다 미 후왕이 일오티 이 제 흔 갑주를 위하야 그 여 러 곳에 로 손은 못

가리니 쉽게 이리로 가져오라 하소서 룡왕이 일오티 상선은 무삼일노가 시리 잇고 쇠북
 파금종이 잇스니 이를 치면 경각에 오리이다 하고 즉시 타장을 명하여 종과 북을 울리니
 세바다 룡왕이 일시에 모혀 형오광을 보고 한헌례 팔에 일오티 왕형이 무삼급호일노 종
 고를 울니 시니 잇고 오광이 일오티 화과 산슈렴동에 사는 신룡호 잔남이 자충련상선이
 라 하고 이웃사노라 하며 와셔 병기를 달나 하거 날장창을 슈어도 가 뛰얍다 하고 희중에
 드러가 신진철을 뇌여 오리 그 잔남이가 장신룡호여 적기와 크기를 마음티로 하며 바
 늘갓 처적게 맨드러가 지고 지금 슈정궁에 잇셔 갑옷을 달나 하되 니게는 갑슈업는 지라
 이련고로 종고를 울녀 현제를 청하여 갑슈를 슈고져 하노라 남허 룡왕 오홈이 디로 하여
 일오티 우리 형제 호가지로 형을 다 하여 저놈을 당하리니 형장이 엇지 이련말슴을 하니
 잇고 오광이 머리를 흔드러 왈 별악이라 도이거슬 처지 못하리니 부절업는 말을 뇌지 말
 고 우리 무삼일로 저와 결우리 오다 만 구하는 것만 어더 좀만 갓지 못하고 또 호욱제 표
 을 울녀 아뢰면 옥제 일정 버히시리라 하되 모든 룡왕이 을히 녀겨 슈정궁에 와 미후왕으
 로 더부러 레 필좌정하고 한헌을 맞치리셔 허 룡왕 오윤은 화금쇠즈 갑일건을 드리고 남
 허 룡왕 오홈은 봉시즈 금관 일정을 슈고 북허 룡왕 오순은 구스보 운리를 드리니 미후왕
 이 갓거스레 하고 인하여 하직고나을 서갑 옷입고 투고 쓰고 신을 신고 물을 헛쳐나오니
 사허 룡왕이 일오티 우리 저놈의 계육을 보니 가장 분하다 하며 모다 표를 지어 옥제 세을
 니 더라 미후왕이 화과 산슈렴동에 도라오니 세월수와 모든 잔남이들이 모다 기다리더

니 미후왕이 물에 켜여 나 석상에 안즈니 몸에 흐점물이 업고 금빛지 찬란하더라 모든 잔
 남이들이 모다 썩러 고왈 티왕이 무삼보기를 더오시니 잇고 미후왕이 갓분 빛을 썩여
 우음을 먹음고 일오티 다통왕을 보고 호보비를 드니 이는 일은 바신진철이 니이
 곳하우씨 홍슈를 다사리든 거시라 일홈은 여의금자방이 오무게는 일만삼천오백근이
 라삭엿스니 그 쇠막티적이라 하면 적어지고 크라 하면 커지는 지라 저근바늘만치 맨드
 러귀속에 넣코왔나니 뇌히 들은모다 보라 하고 귀속으로 바늘을 나흘녀 들고 두어 번
 썩득이니 그 바늘이 변하여 쇠막티되여 길이 하늘에 조욱하거늘 땅에 싹고 모든 잔남이
 들을 불러 움작이라 하니 중잔잡이들이 달아들어 움작여 보니 잔즈리 티산을 거음갓호
 지라 미후왕이 웃고 막티를 싸혀 들고 헛갓갓치 두루며 쓰다가 적으라 하니 도로 바늘갓
 치되 거늘 귀속에 뇌허 감초니 모다 보고 일오티 온갓보비 님즈 잇다 하니 미후왕이 또 갑
 주어든 말을 이르니 모다 치하하고 또 구경음을 청호되 미후왕이 또 귀속으로 바늘을 뇌
 여 번득이니 두말은 한 쇠막티되거늘 손에 쥐고 골문 밧게나와 신룡을 부러 몸을 흔드러
 변하니 머리는 티산갓고 길이는 금즈방과 같고 혀 하날노 삼십삼련에 닳고 쌍호로는 이
 심 팔총디옥에 스 못치며 눈방울은 번기갓고 입은 검극갓호며 쇼리는 벽력갓호여 온갓
 변화하기를 기록하니 철십이동요왕이 두려일시에 와 절하며 치하하거날 미후왕이
 도로 본상을 뇌여 금즈방을 번득여 바늘만치 맨드러 귀속에 넣코동부에 도라와 세월슈
 를 명하여 영치를 정돈하며 상벌을 맞겨 위엄을 세우더라 미후왕이 일노 불터마음이 한

가하야 날마다 구름도 타고 안기도 타고 사해로도 단단여 천산만수를 구경하며 우마왕
 파사타왕과 미후왕과 후요왕과 마요왕으로 미자철형제 되었는지라 서로 좃츠모다 즐
 거하니 만리를 순식간에 다니더라 일사은 화과산에서 미후왕이 여섯왕을 청하야 우마
 를 지살하야 하날째 제하고 잔치를 베풀하야 서로 즐기셔 모다 뒤취하는지라 다너여 보
 니 고쇠다리가 애안조조오더니 홀연 두홍악혼귀선이 한장 비즈를 가지고 압히 이르거
 놀미후왕이 보니 비즈에 손오공이라 썼거늘 시비를 못지 아니하고 다라들녀하더니 그
 놈들이 쇠스슬노미여 풍우긋치모라 다라나니 영혼이 풍도성에 다라난 미후왕이 술
 이점사쳐였는지라 머리를 드러자 제이보니 성상에 피를 곁고 피에 써스되 유명이라 하
 였거늘 미후왕이 돈연이 쳐다라헤오티이 성은 념라 왕잇는곳이니 너엇지여 괴오리오
 호티 잡아오든 두귀줄이 일오티네 금년운수진호였스니 잡아왔는니라 미후왕이 날오
 티로 손은 삼계 밧게 뛰어나고 오형에 드지 아니하엿스니 뒤감히 날을 잡아오리오호
 티그귀줄이 못치아니하고 점사살어가 거날미후왕이 성녀여 귀속으로 쇠막티를녀
 여 두컷거슬쳐 죽장을 맨늘고 바로 풍도성안으로 드러가니 우후나찰은 동으로 피하고
 마두나찰은 서흐로 피하야 가며 못컷것들은 환망이 숨라 전에 치다라 싹왕세살오티사
 왕아곤환이 낫는이다 밧게 혼외 힘외공긋흔거시 쇠막티를가지고 스름을 집두다려
 오나이다 싹티왕이 급히 웨여 왈상선은 급흔을 잠간긋치소서 미후왕이 눈을 부릅뜨고
 일오티나논 화과산수렴동에잇는런상성인손오공로야 님이라너히는 벼살이 무어신

다 싹티왕이 몸을 굽혀 답하되 우리는 옥제 봉하신바 싹티왕이라 하거늘 미후왕이 일
 오티너희등은 썰니 성명을 일너 쇠막티로마질거슬면라 싹티왕이 일오대우리는 제
 일진광대왕과 제이초강대왕과 제삼송제대왕과 제스오관대왕과 제오념라대왕과 제
 륜평등대왕과 제철티산대왕과 제팔변성대왕과 제구도시대왕과 제십전륜대왕이로
 라미후왕이 일오대너희등이 님의 왕위에잇스니 맛당이 현영할거시어 놀엇지 사름을
 함부로 잡혀오게하나뇨로 선은 선도를 님가 목숨이 하늘과긋하야 삼계에 뛰어나고오
 형가온대도드지아니하엿거늘너희들이 감히 인간스름만녀겨 임의대로하야이로
 야 님을 감히 침로하는 다 싹대왕이 일오대상선은 잠간로를 참으소서너론던하에 일흔
 곳흔이도만흔지라이러함으로 쳐스일정그릇하도다미후왕이 일오대상담에 일으기
 를 구외의셔 처스를 보니 미그르지아니라하니 잡아말사고 성스부를녀오라하니 판관
 최옥이 엿지 감히티만하리오온갓처부를하날긋치녀쌌코모다상고하되 일정축성
 의류에도 업고 잔납이 류에도 업스니 이는 본시 손오공이 스름도아니오즈형의류도아
 니미사인곳이 업는지라야모리츠즈도 업더니 일천승빅신일곱지권에여덜장셋제줄
 에손오공의 일흔을어더너니 써스되 손오공은하날어니신들 잔납이니 승빅사십이년
 이되면 출절에 선종하라하엿거늘 미후왕이 일오대너복숨이 본시하날과긋흐니 성명
 이엇지 명스게스부에잇스리오로 손에 성명은에 위엄시할거시니 붓을 가져오라하
 대 푸른 옷남은 관원이 황망이 붓을드리거늘 미후왕이 붓을들어 먹을 흠뻑 못쳐제일

홍썸아니라 모든 잔남의 일흠을 다 에우고 성스부를 짓밟고 금즈방을 두루고 솜라면에
 뛰어나오니 쳐마다 두려호여 썰고 뒤감히 막으리 오십대명왕이 모다 취운동에 가다 장
 보살을 보고 의논호여 표를 지어 옥제제를 니더라 미후왕이 쇠막대를 두루고 풍도성안
 으로서나 오다가 풀뚫히 것쳐 넘어 지미 놀나 세니 흠뻘이라 미후왕이 보니 제원수와 못
 잔남이들이 피섯다가 무려 갈오대왕이 술이 취호여 었지오리 취침호시니 잇고 미후왕
 이 꿈에 명스께에 작란호고 삼라전심대왕을 저히고 성사부에 일흠을 에워 업시호고 또
 모든 잔남들의 일흠을 업시호고 성스부를 또 호모다 짓쳐바림을 제스히 이르니 모든 잔
 남들이 사례호고 절호여 널오되 스왕의 덕뵈므로 우리도 모다 장성불스호게 되엿도 쇼
 이다 호고 모다 날뛰며 즐거워 놀거 날철십이동요왕이 차언을 듯고 모다 거룩히 녀
 여치호호더라 미후왕이 차후로 부터 더욱 두려울거시 업더라 일스은 옥데 금궐운궁영
 소보던에 게서 모든 선관의 조회를 바드실서 구광진인이 주호되 동희룡왕오광이 표를
 을 냈나 이다 호거 날옥데 면지를 나려 부르라 호시니 룡왕이 옥데 세나가 복디호고 표
 를 올린디 선동이 바 더욱 데세하 감호시니 그 표에 왈
 하계 동희룡왕신오광은 돈슈벽비호음고 옥청궁옥데 세 표를 올니 읍나 이다 동승신주
 오리국화과 산수렴동에 잇는 요괴로 온돌잔남이 신룡이 거룩호와 룡궁에 드러와 작란
 이비상호음고 비지물신진철을 아스셔가오며 또 호신의 아오서 희룡왕의 게는 봉시
 자금관일정과 북희룡왕의 게는 운스보운리호쌍을 아사갓사오며 작란이 무쌍호오나

힘이 밋지 못호와 잡지 못호엿스오나 락병을 나리오사 요얼을 소탕호와 희증을 평안케
 호심을 천만바라 읍느 이다 호엿더라

옥데 남필에 티로 호사즉시 신장을 명호사오 공을 잡으라 호시니 동희룡왕이 사은호고
 물너느더니 또 갈선현사주호되 만세유명사에 진광왕과 지장보살이 표를 올니 이
 다 호거 날옥데 바다 보시니 그 표에 갈왓스되

신지장보살과 십디명왕은 업대여 옥폐에 올니 읍나 이다 신등은 듯스오나 명부는 인잔
 에어 진일을 표장호고 사나온 일을 증거호는 곳이기로 성스에 장단을 삼으며 지옥에 참
 독흠을 비설호야 모든 중생을 제어호거 날이 제하날이 너신화과 산수렴동에 잇는 돌잔
 남이 극히 흥녕호고 신룡이 거룩호와 명부처스를 쳐 죽이 읍고 성사부에 잔남이 일흠을
 모다 업시호고 삼라전에서 작란이 무쌍호오니 그 죄극호은 지라 맛당이 스놈을 잡아사
 비티디옥에 너히릭만 눈회지느도록 사지 못호게 호리니 바라건디 쌀니 신장을 느리
 오사 명부에 와서 더러온 바를 청정케 호여 주읍심을 바라 읍느 이다 호엿더라

옥데 보시기를 다 호시디 즉시 전지를 느리스갈오스되 자연 처치잇스리니 물너잇스라
 호신디 지장티왕이 물너가거 날옥데 좌우 선관다려 무르시되 요괴로 온잔남이 어는 씨
 에 나스며 엿지도를 비왓는 뇨밧그로 천리안순풍이 주왓이 돌잔남이 삼릭년전에 하날
 아리니 이거시 필연요괴되여 락상과 인간에 화를 짓칠가 호엿더니 과연 이긋치 작란호

도다 하시고 모든 신장을 명하여 화과산에 내려가 손오공을 잡으라 하시니 티빅금성이
 었조대이 잔납이 비록 짐성이 오는런디 일월 정기로 삼겨 낫스와 선가에 큰도를 비와
 몸이 빅과 눈희에 버셔 낫슴으로 사히 룡왕과 십대 명왕이 잡지 못하였스오니 형여하날
 위임으로써 처음다가 만일 잡지 못하면 속절업시 혁명이 육될가 하는이다 선우는 만
 물에 성성함을 넘호스 위임을 동치마르시고 상계에 내려와 자근 벼살을 유스인하야
 잡아 두면 인간에 작란이 적을가 함을 고만일 제련명을 밧잡거던 선록에 처부하옵고던
 명을 항거하옵거던 그제야련 병을 나려치심이 늦지아니하오며 인간에 또호쇼요치아
 니 할가하나니 다옥제드르시고 올히녀기스이에 문곡선관을 명초하사 티빅금성으로
 더부러 하계에 내려가 잔납이를 초안하라 하시니 금성이 명을 밧조와 남련문을 나구름
 라고 화과산수림동에 오니 동구에 자근 잔납이 조을 거날 금성이 보고 일오되 나눈옥데
 켜셔 보되 신금성이니 네티왕을 청하러 왓스니 선룡이라 자근 잔납이 동천에 드러가려
 빅금성의 말을 고하거날 미후왕이 깃거 왓니 정히 상계를 구경코하더니 이제원을
 이루도다 하고던사를 청하야 마지니 금성이 드러와 남면하야 서서 일오되 나눈련상티
 빅금성이 러니 옥데명을 바다가 드러를 명초하라 함심이 왓스니 었더하쇼오공이 이에사
 례하고 금성과 갓치 근두운라고 남련문을 항하고 가니라

○제스회 관봉필마심하족 명주제천의미령
 각설증장던왕이 방유등신당도등던스네원슈를지휘하야 창금으로 미후왕을 막아드

라지아나 커늘미 후왕이 로왓 금성은 늙은간스호 무리로 다로 선을 청하 고 었지이에와
 막지르느노 금성왓그디는 로를긋치라 그디본시던 당에 이른비업고 또던 독에 일흠이
 업스니 모든 신장이 아지 못하느니라 었지 절겨사사 로이 드러보되 리오이 제옥제 배
 와 일흠이런 독에 잇게하 면 뒤 감히 막으리 오미 후왕이 일오되 거짓말스나 스는가지
 못하리라 금성이 붓잡고 일오되 날과 할께 드러가면 막으리 업스리라 하고 미후왕으로
 더부러 상계에 올라던 당에 드러오니 금광이 만줄이나 조요하야 가득하 고 밝은안기와
 상서에 괴운이 어리엿스며 남편에는 뉴리를 사랏스니 찬란한 빛치눈에 바이고 빅옥기
 동과 수정란간이며 온갖괴이 흠물건은 일오헤아리지 못할너라 수빅선관이 후금갑금
 투구에 후홍포옥되로 좌우에라 털하엿스니 위엄이 능스하더라 티빅금성이 오공을다
 리고 금궐운궁영소보전에 이르러 드러갈척미 후왕이 상데부르시느 명을기다리지도
 아니하 고 금성을 썩라바로 정전에 드러가 옥데 배뵈옵고 례도아니하 고 혼편에 서스금
 성의 주하는 말을 듯더라 금성이 답하에 부지하야 살오되 하계에 요션을 불너 왔나이
 다 옥데 갈오스디 요션이 어디잇느뇨 하시니 말삼이 맞지 못하야 미후왕이 몸을 굽혀되
 답하되 로션이여 괴잇나이다 모든 선관이 보고 실척하야 옥데 배죄를 청하되 이돌잔납
 이가장 무례하야 도회도아니하 고 되다라 말삼을 되답하니 그 죄 죽임직하오이다 금성
 이또 주하야 살오되 이잔납이 하계에 잇스와 옥데의 지극히 높흐신 위엄과 엄숙호법도
 를아지 못하옵고 이갓치 무례하오니 가히 처죄하염직하오나 무량하옵신덕력으로 죄

를 용서 하옵시고 언상에 벼살을 식이 심이 맛당하 여이다 옥데 그말씀을 드르스 전지
 하시되 삼십승던가 온디 무삼 벼살이 껴이 잇는 노전지 나리시되 모다 묵스 이러니 언상
 로군이 주하되 언중에 하노도 업습고 오작어 마감의 필마온이란 소임이 껴이 잇스오니
 가히 손오공으로 어마 필마온을 식이 심이 맛당하 니이다 옥데 동기 언하 시니 손오공이
 디희하 여옥계 하에 고두 비스하 고물너 금성의게 치스 후후어 마감에 오니 어마 감에 말
 씩기논승과 감이며 전부와 모든 판리 잔치를 비설하야 오공을 치하하 며 즐겨 술먹더니
 오공이 물여 왈 필마온이란 벼살이 무삼 품이 되는 노모다 답하되 품이 업는 니라 오공 왈
 품이 업다 하니 품기논 품이 업다 함이나 벼살이 아니라 함이나 모다 일오티아 저말 품에
 벼살이 미하 고소하 나다 만 말을 보와 말이 살지고 부성하 면 잘하 다하 고 말이 여외고 무
 용하 면 죄를 남는 니라 오공이 언파에 디로 왈 로야 전일 화과 산에 잇슬 제왕 락을 누리 줄
 기여 짜이 업거 날어 진스름을 불너 다가 이말 먹이논 쇼임을 맛기니 이렇듯 수욕하 리요
 하 고 발노셔 안을 박쳐며 귀속에 쇠막 디를 너여 두루고 뛰여 너다라 날런문을 나가니 모
 든 신장이 임의 오공이 선독의을 나 벼살 흔줄아는 고로 아모도 막지 못하 고 가는 디로 바
 러 두거 날 오공이 소리를 질너 왈 로 손이 오노라 하 며 구름 타고 화과 산수렴동에 는려 동
 천에 드러가 놀하 안즈니 모든 잔남들이 고두스 레와 디왕이 언상에 가신지 말셔 십년이
 남 앓더니 엿저 오날스 오시니 잇고 미 후왕 왈 너간 지겨우 반년이 어날 엿지 십년이 되는
 노 못잔 남들이 일오대스 왕이 모르신 잇가 언상 하로 가인 간에 한히라 하 며 스 감히 못잡

느니 대왕이 언상에 무삼 벼살하 니 잇가 오공이 썩내여 손을 저어 일오대 이르지 말느내
 너희보기 붓그럽도다 옥데 스름을 모르시고 로손의 얼골이 곱지아 나라 하스 말 먹이논
 필마온 벼살을 하 이시니 이거슨 말 품도 못가는 벼살이라 로손이 모르고도 임하 였더니
 그 후에 감승 관으로 술먹다가 비로 쇼알고 벼살을 바리고 왓노라 하 디 못잔 남들이 일오
 디스 왕이 도로 오시기를 잘하 셧스며 우리 동천에서 왕 락을 누리시지 무삼 일노 남의 아
 리편치 못하 리 잇가 이에 잔치하 여 술을 느오며 왈 디왕은 이 술노 한을 푸소서 하 고 모다
 동음하 더니 홀연 보하 되 독각 디왕이 와 죄음을 청하 느이다 하 거 날 미 후왕이 드러 오라
 하 디 독각 대왕이 드러 와 레를 맛고 왈 내 드르미 대왕이 어진스름을 구하 신다 함이 죄을
 길이 업더 니 이제 대왕이 언상에 올라가 언독에 참여하시 고 영화로 이도라 오시니 마음
 에 깃겁기를 칙양치 못하 여 특별이 자 황포 일건으로 제미 흥정성을 표하 느니 흥허 바리
 지아니 시면 견마에 힘을 다하 리다 미 후왕이 대희하 여 자 황포를 남고 독각 대왕을 봉하
 여 전부 총독을 하 이고 갖가 이 말 삼하 니 독각이 스레 왕 향즈 대왕이 언상에 무삼 벼살하
 시니 잇고 왕이 변척 왈 옥데 사름을 물느 보시고 로손을 업슈히 너기스 말 먹이논 필마온
 벼살을 하 이스 수욕하 심이 심하 리 내 벼살을 바리고 도라 왓노라 독각 왈 대왕이 무궁하
 신등을 가지 고 천하 벼살을 하 리오 이제는 동중에서 왕 락을 누리소서 하 더라 츠스미 후
 왕이 독각으로 술을 먹다가 일오대 그대와 서보 니다 하 하도다 독각이 만스 손스 하 고
 다시고 왈 이제는 대왕이 존호를 제련대 성이라 하 고 그에 써 다른스름을 제방하 소서미

후왕왕이 가정묘하 다하고 이후로 제련대성이라 하고 네원슈의게 분부하야 그의너저
 를쓰고 추후는 제련대성이라 일컫더라 잇흔날옥 데금월 영쇼보 전에셔 모든 선관의
 도회바드실시 모든 당련셔어 마감스승을인하야 단지의 주하되 서로 할필마온손오
 공이벼슬이느 지무로하야 자일에 다라나이다 또 남련문진헌종장련왕이 모든 신장
 을다리고 드러와 고하되 자일의 필마온이 홀연 남련문으로 다라나이다 하거날 옥데
 물너가라 하시고 칙지를느 리오스빨니련병을발하야 요괴를잡으라 하시니 반부중느
 탁리조와리련왕이 단지하의 주왕신의부처맛당이 하계에 가요괴를잡으리이다 하
 거날 옥데잇그스즉시리련왕리정으로 선봉을하야 시고즉일홍스하라 하시니 리련왕
 부주사은하고 영의도와와삼군을점고하야 거령신으로 모든 두목을거나려 심만련병
 을조발하야 남련문을나 화과산을나려와군스를분하야 수렴동을철통갓치쓰고 신장
 거령신으로 쓰면저쓰홍을도하라하니 거령신이응명하고 선화부를들너수렴동문밖
 게가니 못잔남들이 날뛰며요무양위하거늘 거령신이질왕네수이 드러가 팔마온다
 려이리나오라하라 내옥데명을밧아 팔마온을잡으려와노라 무잔남이 드러가 미후
 왕세고하니 대성이즉시갑입고투구쓰고 금조방을두르며 골문에나와진치고나니 거
 려신이질왕네나를모르고 감히겨루려하느다 대성왕터럭똥치귀시가지장담큰체하
 고말하거니와 엇지대성을몰나보고 무례히구느다네성명을통하라 거령신왕필마온
 아네분명날을모르느다나느 옥데답히신임하느리련왕선봉거령신이러니 성지를밧

아너를잡으려와스니 일호는 순종치아니하면 못잔놈의 목숨을보전치못하코너를잡
 아가루를밧들니라 대성이대로왕몸슬밧천거시엇지 감히 입을여러그런말하느다너
 를이최막대로쳐죽일거시로대잔명을용셔하나니수히도가옥데세고하라어전스
 롬을몰나보고손을청하야 천호쇼임을밧기내이러무로하야 벼슬을바리고왔
 거니와네고우히손글자를보라나를되서다 제련대성을봉하시면속청할거시오
 불연즉최막대로작란하리라 거령신이기를보니과연제련대성이라 두렛이썩거늘로
 즐왈이잔놈이무례함이이러듯하리오하고 선화부를들어찍으려하거날대성이급히
 금자방을내어어지러이두르니 거령신은본던상명장이라 신룡이히중에서뛰늘고범
 은하계의괴이호도를비와스니서로변화하야 한밭당쓰호니룡이히중에서뛰늘고범
 이공산에서닷도는듯하더라 거령신이점々기운이최진하야 힘이당치못하거늘오공
 이최막도로도치를쳐부러지거늘미후왕이쇼왕내너를죽이지아니하느니빨니도
 라가라 거령신이피하야본전에도라와리련왕을보고청죄하니 리련왕이로미왕네면
 저우리에기를최찰케하니내어버하라느탁리조고왕부왕은식으로하쇼셔제비록피하
 느승피는병가상스오니아적용셔하쇼셔쇼죄할변는아가쓰화적의심천을안후쳐치
 함이늦지아나리이다리련왕이 거령신을스하고느탁으로쓰호라하느니탁이느아가
 디즐왈이잔놈이엇지를모르느다느리련왕의삼리조느탁이라 성지를밧아너를
 잡으려와노라 디성이쇼왕네얼골을보니아미비속에셔갓싸져러럭도치마르지안

얏거늘 내 감히 담곤 체 하고 곤 말을 하는 내 기우히 쓴 것을 보라 옥대 이 티로 봉하 면 귀
 순하려니와 그릇치 아니면 너 영쇼 보전에 올라가 쇠막 티로 작란 하려 노라 나 락이 보니
 귀에 제련 티성이라 씻거늘 티로 하 여 일오 티 및 치 잔습이 감히 이런 말을 일컫는 다 너 혼
 칼을 두려 아니면 내 착하 다 하 리라 티 성왕 내 험 티로 천 만 번이나 씌 으라 나는 두려 아니
 노라 나 락이 듯고 분로 하 여 혼 쇼 리 지르고 곤 두쳐 변화 하 니 제머 리 여섯 팔에 키 하 늘
 에 자옥 혼 스름이 되 여 손 마 다 병의 를 들 고 티 성을 치 니 이는 간 괴 버 히는 칼과 요 괴 죽 이
 는 창과 요 괴 치는 도 처라 요 괴 미 히는 노히며 요 괴 치는 절구며 요 괴 치는 철되 니 여섯 병
 귀를 드려 어 지러 이 치 거늘 제련 티성이 마 음이 놀 아 왕이 아 히 이 리 신 통 하 여 변화 하 니
 너 엇지 쇼 금 이 나 제 게 지 리 요 하 고 또 혼 쇼 리 지르고 곤 두쳐 변화 하 여 저 도 제머 리 여섯
 팔에 키 하 날에 자옥 혼 스름이 되 여 손 마 다 쇠막 티를 들 고 나 락 으 로 더 부러 싸 화 급히 치
 니 산이 문히 지고 바 다 허 터 지는 듯 하 더 라 다 시 손 오 공 으 로 슈 심 여 할 을 싸 호 더 니 나 락
 이 또 변화 하 여 다섯머 리 열 팔 가 진 스름이 되 여 손 마 다 병의 를 들 고 오 공 을 어 지 러 이 치 는
 지라 오 공 이 나 락 의 변 혼 을 보 고 저 도 변화 하 여 다섯머 리 열 팔 이 되 여 손 마 다 쇠막 티 를 들
 고 반공 에 서 혼 참 쓰 호 니 별 이 흐 르 는 듯 비 쌀 갖 처 는 지라 둘 이 승 부 를 결 치 못 하 더
 니 본 티 오 공 은 손 이 빠 르 고 또 혼 눈 이 밝 은 지라 어 켜 러 이 싸 호 는 가 온 티 가 만 이 털 을 쟁
 혀 제 열 골 을 밋 들 어 나 락 과 쓰 호 게 하 고 저 는 가 만 이 췌 쳐 나 락 의 등 뒤 흐 로 도라 가 나 락
 의 엇기 를 치 니 나 락 이 무 심 중 에 밋 쳐 막 지 못 하 여 엇기 를 마 즈 압 품 을 견 티 지 못 하 는

지라 피하 여 도라 오 니 리련 왕 이 칼을 들 고 싸 호 고 저 하 거늘 나 락 이 췌 며 왕 부 왕 은 싸 호
 지 마 르 쇼 서 이 거 시 가 장 신 통 하 여 변화 무 궁 하 기 로 당 치 못 하 시 리 이 다 리련 왕 이 실 식
 문왕 이 놉 이 너 리 신 통 하 니 엇지 잡 으 리 오 나 락 이 주 왕 그 잔 남 이 일 오 티 옥 데 세 제 괴
 에 쓴 티로 봉 하 시 면 조 흐 러 나 와 불 연 즉 영 쇼 보 전 에 올라 가 작란 하 리라 하 더 이 다 츄
 시 리련 왕 이 듯고 왕 남 의 이 러 하 면 아 즉 쓰 혼 을 날 이 고 하 날 노 도라 가 이 말을 주 문 하 야
 다 시 성 신 을 거 나 려 와 쓰 혼 이 을 흘 가 하 노라 하 고 리련 병 을 거 나 려 도라 가 더 라 미 후 왕
 이 쓰 혼 을 이 괴 고 동 중 에 도라 와 철 심 이 동 요 왕 과 우 마 왕 등 육 형 데 와 못 잔 남 들 을 모 화
 잔 처 흘 지 미 후 왕 왕 이 제 리련 왕 이 피 하 여 갖 스 니 우리 동 천 에 서 왕 락 누 리며 또 제련 티
 성 존 호 을 어 댓 스 니 너 엇지 혼 노 바 으 리 오 제 형 도 다 티 성 이 라 하 오 우 마 왕 왕 현 제 의 말
 숨 이 가 장 뉴 리 하 오 니 나 는 평 련 티 성 이 라 하 노라 봉 마 왕 왕 나 는 혼 련 티 성 이 라 하 노라
 사 라 왕 왕 나 는 이 산 티 성 이 라 하 노라 교 마 왕 왕 나 는 동 풍 티 성 이 라 하 노라 미 후 왕 왕 나
 는 구 신 티 성 이 라 하 노라 요 마 왕 왕 나 는 북 히 티 성 이 라 하 노라 이 날 부터 모든 티 성 이 날
 마 다 모 혀 즐 기 니 라 각 설 리련 왕 이 삼 티 즈 나 락 으 로 더 부러 구 름 타 고 바 로 영 쇼 보
 전 에 올라 가 옥 제 제 주 왕 신 등 이 성 저 를 밋 자 와 하 게 에 출 스 하 왔 더 니 요 괴 로 온 손 오 공
 이 가 장 신 통 하 여 아 모 리 쓰 화 도 이 괴 지 못 하 니 업 티 여 바 라 건 티련 병 을 더 청 하 나 이
 다 나 락 이 또 주 왕 그 잔 남 이 신 통 이 거 록 하 야 쇠막 티 를 잘 쓰 니 거 령 신 이 먼저 피 하 얏 스
 리 신 이 또 쓰 호 다 가 피 하 야 엇기 를 마 즈 디 물 너 왔 스 오 니 하 늘 성 신 을 다 하 여 치 지 아 니

면잡기어렵삽고제기에제던디성이라써맞치고다니며왕욱데이티로봉하시면귀순
 하려니와불연죽영소보전에올나작관하러하노라하니그말디로하시면조호나일이
 가장악하하여이다옥데늘니스왕돌잔남이엇지여초광망흔말을하리오하시고리던
 왕부즈를니여버히라하시니티빅금성이슈왕들잔남이사체를모르고흔갓제제조만
 밋사오니복망옥데는위엄을거두시고쇼셔를나리와제원티로그벼슬을나리와죽업
 시봉하여주시면근진이안정하오려니와또던병을느려치다가이과지못하오면욕될
 가하느이다옥데금성의말디로원슈의병을거두어칙지를느리와초안하라하시던금
 성이칙지를받조와다시남던문을느와구름타고화과산에오니과치창금이삼년하고
 못잔남이의위풍이능사하니요괴괴운이가득하되동비원슈와원휘원슈수만잔남을
 거느려돌너쓰거늘금성이쇼리질너왕너는셀니동중에드러가디성의게아되라나
 는옥데칙지를받아느려던상티빅금성이라하시니못잔남이이티로디성의게고하
 니디성이나와금성을보고왕또로손을무삼일노달너려온다금성왕그디죄를옥데스
 하시고명초하시니빨니상던하여칙명을거스리지말지어다디성이즉시금성을싸라
 영쇼보전에시립흔티옥데전지하어갈오사디네죄는가히죽임직하느전죄를사하고
 네원티로중임을맞기노라하시고안정스와영신스란두방을짓고사후하느선인을
 두어디성의게잇게하고두선관을명하여싸라가부임하라하고어쥬두병과금화십타
 를쥬어전일을잇고셔로어진마음먹으라하시던디성이고두스은하고즉시부중에도

라가부임하고옥데주신이주와금타를두선관을디점하야도라보너고차후로는마
 음에즐거던궁에서패락하더라차시제던디성은본디요괴로온돌잔남이라벼살이농
 고나즘과복죽이무량함을모르고제던부에선관이스후함을깃거삼산오악과던궁에
 다니며모든성신과선관으로더부러금장옥익과반도선과를먹으며던락을누리던
 상제일흔가흔신선이러라일사은옥데모든신선의도회를받으실시터상로군이출
 반쥬왕디성이그한가흔중에변을닐듯하은지라아모쇼임이나맞거한가치못하게
 하옵쇼셔옥데올허너지스도셔를느리와부르신디사성이드러와되거늘옥데갈오스
 디네흔가히잇슴으로일을맞기고져불너거니와이제반도직혈관원이업는지라널노
 가음알게하느니쇼임을그릇치지말고초후는임의로단이지물느하시니디성이사제
 진짓벼슬을쥬스던상중임을시거시는줄알고심중의디회하여단지하에서고두빅스
 하고물너와반도원의가나도지신이막고드리지아니커늘디성왕네엇지날을드리
 지아나하노로지신왕우리는반도원을지히여다른선관을금제하노라디성왕너이제
 옥제명을받아반도가음알게하여제시니모든사름을점고하라와노라도지신이일반
 호미질하는역스와반도원거두는녀스를다불너디성의게고두하여외고한가지로도
 러가니슈업는복성화느무가요사작사하여푸른남속의붉은여름이열엇스니과연속
 익이출립못할곳이라디성이두루구경하고도지신다려문왕이남기몇주는하노로
 지신왕처음셔왕외삼천육백주를심으시니사름이먹으면신선의도를일위몸이가뵈

얇고하날의오르며일만년을슬고중간의일천이백주는셋치총사하고여름이열녀
 천년의한번식의미사름이먹으면안키나듯하고구름흐르는듯하야장성불로하야
 일만년을살고뒤줄일천이백주는여름이만흐되붉은몸붉은씨니만년만에흔번식의
 으니사름이먹으면목숨이던지와갓고그한이업느니라티성이심중에대희하여혜오
 티이반도니손에잇스니장성할선악을어늘줄엇지알니오하고온갓역스를점고하
 부중에도라와쉬고이후삼스일에흔번식구경하며벗스귀여다니지아니하더라일
 은티성이반도에드러가니푸른님스이에반도반느마붉엇거늘마음에거룩히먹고
 하여춤을홀녀곳씩먹을계피를씻각하더라

○제오회

난반도티성투담

반던궁제신축귀

차시티성이흔계교를성각고제역스와선리와도지신드러왈니몸이피곤하여정즈에
 서자고저하니너의모다슈고로오니불안홀지라잠잔문밖게나가기다리되불느거든
 드러오고임의로나들지말나모다물너가니티성이웃을벗고뛰여올나익은반도를갈
 희여슬로록먹고빅부르거늘변하여키두자나홀아히되여가지우히올나님만혼사이
 에셔자더니츠시셔왕모낭사이요지에셔반도회를성식일곱선녀로각각광주리를
 주어반도원에게도지신과선녀의계분부하야반도를싸오라하시니선녀반도원에이
 르미도지신과선리모다원문밖게잇서선녀를드리지안케늘선녀이녀왈셔왕모낭사이
 반도회를하시다가반도를싸라왔거늘엇지막는다모다일오티예와달나옥데데던티

성으로반도원을직히라하시미맛당이티성세고하임의로드리지못하리라선녀왈
 티성이어디잇는뇨모다티왈안정스에서잔다하거날선녀왈더티지못하리니쌀니
 등하라도지신이선녀를다리고반도원에드러가아모리티성을차지되잔곳업거날선
 녀왈우리그저가지못하리니티성을찾지못하면엇지하리오도지신왈대성이일정벗
 을차지러간듯하오니엇기는쉽지못하거니와선녀낭사의명으로왔스니선녀즉시압
 줄에가셔계광주리를싸고가온디줄에가두광주리를싸고뒤줄에가니나무넙히만이
 썰러지고여름이희소하야푸르러익지안던거시반이넘어되고익은거슨하낫업스
 니어이업셔두로보니나무가지에반만익은거시하는하잇거늘붉은웃입은선녀가지
 을휘여잡고프른웃입은선녀싸다가밋그러워가지노와바리니티성이그가지우
 히셔자다가뛰여느러본상을녀귀로셔쇠막티를녀두르며쑥지져왈네엇던요과
 완디감히담큰체고어원반도를도적하느다일곱선녀황망이말어고왈티성은로를
 곳치소서소유를고하리이다셔왕모낭사의명으로반도를싸라와나이다티성이듯고
 깃거왈반도성회누구사쳐하시다뇨선녀왈눈지잇셔사련여리와제티보슬과라한
 이며남히관세음보살과십주삼도선옹과우두선군과상팔동삼청련존과티을선군과
 중팔동육황구뢰와히악신선과하팔동삼청련존과티을선관과하팔동육명공주와주
 제지선과각전각동티소신령을다청하시나이다로손은제련티성이라엇지청치아니
 하시다뇨선녀왈일직티성을청할단말은듯지못하엿나이다티성왈만일날을청하면

반도를 쥘려니와 불연즉씨도 아니쥘리라 하고 님으로 진언을 엄히며 선녀로 하여금 몸을
 을 움작이지 못하게 하고 근 두쳐가니 모든 선녀나 무뎡히 부처 뜻대로 지냈더라 디성이
 구름 타고 요지가다가 적각 디션을 만는 심중에 혼썬을 생각하고 문왈로 선이 어 디로
 가나니 잇고 적각 디선이 왈 요지 보각에서 반도 성회를 하시미 청하기로 가노라 디성이
 짐짓 속여 일오더로 선이 이긋치아득하시노 옥데 동명전에 도회바드려 하실지 전지나
 리왔거늘 엿지 반도 성회에 참여하시리 잇고 하고 디션을 속여 보되 고즈레 보각에 이르
 니서 의만공하여 향연이 축비하고 제선이 디강 열좌하였거늘 감히 여어 보지 못하고
 은 선법을 행하여 혼곳에 이르니 제선녀 후물도 길으며 후불도 거두며 후류리 반도 셋고
 허다 혼선 슈선미와 모든 찬과를 즐비히 괴와 맛참디 후하려하거날 디성이 먹고저마음
 이 금하여 입의 침을 흘니고 션스느직힌스름이 만흔지라 가만히 터럭을 빼여 합슈충을
 밋드러 날여 못스름의 괴운이며 코에 노흐니 일시의 눈이 다 푸러지고 누어 자거날 그러
 혼선 슈선미와 찬과를 비가차도록 먹고 점점 취하여 단이다가 해오디 만일 낭의게 잡
 혀옥을 보면 엿지 하리오도라 감만갓지 못하다하고 도라오다가 길을 그릇드러도 솔던
 궁의 드러가니 술이 세엿난지라 놀는해오디도 솔던 궁은 삼삼삼련의 웃듬이라 엿지
 리은고아 못커는 구경하리라 하고 궁에 드러가니 초시리 상로군이 도를 강논하니 제선
 이 좌우의 버려도를 듯는지라 두로 보되 단방속의 인적이 업는지라 방중의 드러가니 팔
 패화로가 에호로다 션이 잇스되 금단이 자옥히드러거날 디희하여 왈 금단은 선가의 지

극흔보비라 만날 줄 엿지 뜻하리오하고 다섯화로에 금단을 다니여 먹으니 비속에 드러
 가며 술이 세거늘 해오디니 하늘의 자옥 혼죄를 짓고 만일 옥데아르시면 해반다시 측량
 업서 성명을 보전치 못하리니 맛당이 하계로 내려가 왈락을 누리라하고 썬여궁에나
 와 남련문에 이르러 은선법을 행하여 바로 슈렴동에오니 네원 슈못잔남을 무예 연습하
 거늘 디성이 외여 왈 니오노라 혼디 못잔남이 드리 가졌든 병과를 던지고 디성을 마자 동
 려에 드러가모다고 두왈디왕이 이번에는 백년이 나가서 세시다오시니 무삼 놀흔벼슬
 을 할선잇가 디성이 소왈 이번에는 반년이느하거늘 엿지 백년이 리오그러는 옥제날을
 디접하스 제련디성을 봉하시고 반도원 것제련부를 서로 짓고 시위할 선리를 만이 두
 어쥘시니 한가히 단이며 여러 선션을 사귀여 놀더니 옥데도 반도원에 가음 알게하시미
 반도를 혼번 먹으면 장성훈다하거날그런 반도를 만히 싸먹고서 왕모냥사이오지에 성
 회하시미 제션을 청하시되는는 청치안닛코 선녀를 보니 여반도를 싸달는하기로 디로
 하야 선녀를 도술노상에 붓치고 요지가나 잔채를 비설하엿거날그런금정옥의과선
 슈향효을 다도적하여 먹고도라오다가 길을 그릇드러도 솔던 궁에 드러가니 티상으로
 군은 설법하러 단에 올는가고 뷔엿거날 팔패화로 것하다섯화로 버러는 디호로에든
 단약을 다니여 먹고 옥제죄 슈실가 두려이리도 망하여 왈스니 옥의과 반도와 금단은 선
 가에 장성불스하노보비오금단은 선가에 도듬은 보비를 먹엇스니 목숨이 하날과갓거
 니와 필경 무삼일이 잇스리라 무잔남들이 듯고 일시에 처하하며 향기로 온술을을녀왈